

재림의 징조 2: 적그리스도의 빅브라더 시스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라는 인류 통치자가 나타난다. 살후2:4에 보면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신에게 경배하게 한다.

계13장 16-17절을 보면 그는 짐승이라 불림, 그의 표, 짐승의 이름, 그의 이름의 수 666을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경제 활동 불가능

15절: 적그리스도의 철권통치, 독재, 전체주의 시스템

13-14: 다른 짐승이 나타나 짐승을 돕는다. 기적과 이적을 사용해서(13-14)

자 이런 일이 하루 사이에 생길 수는 없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에 순응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통제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이런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인류의 구원자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인류를 통제해야 하는 것, 어떻게

빅브라더: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1949년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사회적 환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이 빅브라더는 사실 엄청난 사회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소설 《1984년》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는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로 보여준다. 음모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자면, 사회의 희망적 권력체제가 아닌 독점권력의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얻는 강력한 권력의 주체가 바로 빅 브라더의 정보수집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도 있다. 1984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약 70년 지난 지금 현실화됨

과거 빅브라더의 실체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소설 속의 그것과 흡사한 감시체제가 현대에 이르러 실제 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규모와 맞먹는 국토안보부가 설치되고, 이들의 감시행동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애국법이 통과된 상태이다.

인간복제뿐만 아니라 빅브라더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다.

(*)(*)과학의 발달: 보안 문제 생체 인식(지문, 홍채), 현재 가장 각광받는 것은 얼굴 인식(안면 인식)

(*)5월 19일 영국 해리왕자와 미국 여배우 메건 마클의 ‘로열 웨딩’에는 수백 명의 유명인사가 초대됐다. 영국 스카이뉴스 방송은 웹캐스트를 통해 결혼식을 생중계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하객들의 얼굴 옆에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이름을 게시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닷컴’(아마존)이 개발한 이미지인식 프로그램인 ‘레코그니션’ 덕분이다.

얼굴을 인식해 신분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공상과학(SF) 영화의 단골 소재다. 이런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미지 인식 기술 등의 발달로 실현 단계까지 왔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 2015년 3월 얼굴 인식 결제

과학의 발전 AI의 발전, 인간 계급화

인공 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 주행 비행기(드론), 증공업 로봇, 병 진단 로봇, 아마 설교하는 로봇 음악 연주, 작곡 등, 인간 컨트롤

빅 데이터는 AI 기술의 핵심 요소다. 우수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중국(정부)은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체 인구 50%에 달하는 7억 명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진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중국 사회의 인식과 광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중국 정부, 그것을 자국 AI 기업 양성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AI 기술의 발전을 가속했다.

2018년 중국에 설치된 폐쇄 회로 감시카메라의 숫자는 약 1억 7천 개에 달한다. AI 기업은 공안 당국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자신들의 기술을 향상한다. 향상된 기술은 다시 정부의 감시 시스템에

이용된다. 센스타임은 광저우 공안 당국으로부터 1천 400만 명에 달하는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제공 받았다.

중국 정부는 빅브라더가 될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AI 기술 양성은 사회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야심이 숨어있다. 2018년 춘절 기간 선을 보인 중국 공안의 (*)스마트 안경이 대표적인 예다.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 텐왕(天网)을 위해 만들어진 이 스마트 안경은 0.1초 만에 최대 1만 명의 얼굴을 스캔해 개인의 신상 정보와 범죄 수배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황단보도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해 무단횡단자의 신상정보를 황단보도 전광판에 띄워 경고를 하는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

(*)텐센트,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4억 달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매체가 중국 AI 기업의 성장을 우려하는 이유다. AI와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은 보안과 삶의 질을 높여 주겠지만, 정부의 감시 역시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부의 감시가 중국을 넘어 중남미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감시가 중국으로 끝이 날지 전 세계로 퍼질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년 뒤면 이동식 발사대 순식간에 발견해서 초토화

<실시간 신원 확인... 사회 안전망 강화인가 '빅브라더' 출현인가> 세계일보

<시진핑의 전국민 감시시스템, 공포의 '빅 브라더', '빅 브라더의 신시대' 도래가 '시진핑의 꿈' 이것이 바로 '중국몽' ?> 뉴스타운

<'빅 브라더' 중국, 사람들 '머릿속'까지 감시한다> 연합뉴스

<13억 얼굴 3초 내 인식...'빅브라더' 중국의 무서운 AI 기술>, 중앙일보

<美 의회 '중국 빅브라더 감시망에 美 기업 참여 막아라' 상무부에 요구>, 파이낸셜 뉴스

중국은 심지어 자국민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계획

정부에서 하층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기차도 타지 못한다.

이처럼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짐승 복제, 인간복제를 하면 인권 탄압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중국이다.

(*)공산주의 중국 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정치 경제 체제로 이루어지는가?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경제가 통제되는 사회이다.

(*)경제는 크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시장 경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통제 경제

지금 전 세상의 방향: 자유 시장 경제에서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 역사: 16세기 종교 개혁까지 로마 카톨릭 전체주의 봉건주의

(*)루터의 종교 개혁: 인간 개인의 자유, 사유 재산, 자유 민주주의, 법치, 자유 시장 경제

미국이 이 시스템을 꽃을 피움

홍지수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미국은 서구문명의 보루(자유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기독교

가치, 유대인 보호, 성경 보호)

1850년 이후로 진화론, 공산주의(사회주의) 등장

(*)진화론: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을 무생물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

(*)공산주의: 유물론, 정부 혹은 빅브라더가 인간 전체를 통제하는 것, 무신론, 유물론

이 둘은 결국 자유를 버리고 전체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진화론은 대성공을 거두어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

공산주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지만 결국 망하고 망

이유: 인간의 기본 욕구(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무시

이러는 동안 공산주의는 한 발짝 우클릭을 해서 사유 재산을 인정하되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사회주의 득세
계급투쟁 이론은 그대로 유지
일단 유럽에서 세 확장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유럽을 구해 줌, 그런데 유럽의 반미 정서는 대단히 큼
미국: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개인의 수월성, 작은 정부
유럽은 일찍이 사회주의 시행: 미국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함(무서워 함)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 찬양: 미국에 대항해서 독립적으로 국가 운영 찬양
실제로 카스트로나 (*)체게바라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 단 하나 이유: 미국에 반대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 쿠바의 어려움은 미국 때문이다.
이런 자들에게 매료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
사회주의가 남미 장악

전 세계 그림을 보면 미국과 몇몇 기독교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이슬람, 아니면 사회주의
큰 정부, 정부 통제, 정부 의존(말은 다 무상 의료, 복지, 요령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진다).
미국도 멸망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오바마 8년 동안 사회주의 시스템, 친 이슬람, 동성 결혼
트럼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선되었지만 아마 역부족, 지식층이 완전히 사회주의 좌파, CNN, 뉴욕
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마존, 구글, 애플
곧 좌익 시스템으로 넘어갈 것이다. 바른 것을 말할 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 자유 시장 경제, 그러나 70년이 지나면서 극도의 반미
반미: 기독교 정신 배척(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체제), 언론의 부패, 교회와 목사들의 침묵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개헌 시도, 극도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계급투쟁(약자와 강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 이슬람/다문화와 기독교, 동성애 등),
사회주의 정책에 물들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무상 병에 걸려들어서).
아무리 거짓 선동을 해도 마약에 거린 사람처럼 벗어나기가 쉽지 ○낱다.

(*) 김정은 미북 회담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 그러나 북한 때문에 한국에서 더 심하다.
기도하고 바르게 투표하는 것

전망

유전자 조작, 짐승 복제, 인간 복제, 동성애, 이슬람, 사회 통제 감시, 전체주의 복귀, 적그리스도의
등장

노아의 대홍수 때 겨우 8명 구원, 왜 이런 데 빠질까?(살후2:9-12)

이런 악한 추세를 막지 못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노아와 롯처럼 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휴거)

1. 기도한다. 2. 말씀을 전한다.
3. 더 뜨겁게 믿음 생활한다.
4. 애국하는 시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시민

살전4:13-15